민주, 광주·전남기초장 8곳 확정

광주 동구청장 후보 유태명
남구청장 후보 황일봉
순천시장 후보 노관규
여수시장 후보 오현섭
신안군수 후보 김청수
담양군수 후보 이정섭
완도군수 후보 박현호
진도군수 후보 김경부

유태명 후보

황일봉 후보

노관규 후보

오현섭 후보

김청수 후보

이정섭 후보

박현호 후보

김경부 후보

민주당은 11일 제 18차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동구청장 후보에 유태명 현 청장을, 여수시장 후보에 오현섭 전 전남부지사를 선정하는 등 광주·전남 8개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들을 확정했다.

우선 광주 동구청장 후보엔 유태명 현 청장이 45.2% 지지율로 수성에 성공했고, 남구청장 후보는 43.7%의 지지율을 얻은 황일봉 현 청장이 차지했다.

순천시장 후보는 23.95%의 지지율을 보인 노관규 변호사로 확정됐으며, 오현섭 전 전남부지사도 32.3%의 지지율을 확보해 여수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신안군수 후보는 22.6%의 지지율을 기록한 김청수 전남서남권발전연구회 의장이 차지했으며, 담양군수 후보는 단독 출마한 이정섭 담양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 결정됐다. 완도군수 후보는 37.5%의 지지를 얻은 박현호 전 완도 부군수가, 진도군수 후보는 김경부 현 군수가 전략 공천을 통해 선출됐다.

광주 동구 광역의원 1선거구 후보는 25.5%의 지지율을 기록한 서인봉 광주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가 선정됐으며 2선거구는 손재홍 현 의원이 40.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 서구 광역의원 1, 2, 3선거구 후보는 송재선 전 언론인(지지율 24.4%), 김동식 전 서구의회 의장(22.6%)이, 김월출 서구의회 의원(22.7%)이 각기 선정됐다. 광주 북구 광역의원 1,2,3선거구 후보는 진선기 광주시당 대외협력위원장(21%), 김후진 전 광주시의회 의원(29.2%) 김순례 광주시의회 의원(19.6%)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광주 북구 광역의원 4,5선거구는 조호권 서울증권 호남본부장(22.7%), 이철원 변호사(26.2%)가 각기 후보로 확정됐다. 남구 광역의원 1선거구는 김선문 광주시당 부위원장(25.8%)이, 2선거구는 나종천 광주시의회 의원(29.2%) 각기 후보로 선출됐다.

광산구 광역의원 1,2,3 선거구는 단독으로 후보로 나선 광주시의원인 강박원, 유재신, 이정남씨로 확정됐다.

순천시 광역의원 1선거구는 박흥수 전 남도의원(35.1%), 광역의원 2선거구는 오하근 지방화시대 연구소장(21.5%)이 각기 후보로 선정됐다.

여수시 광역의원 1,2,3,4 선거구의 경우 김종철 전남도당 위원장(26.3%), 송대수 전남도의원(단일), 서일용 여수박람회 운영위원(18.8%), 최종선 여수시의원(38.4%)가 각기 후보 자격을 획득했다.

완도군 광역의원 1,2선거구 후보는 이부남 신안라이온스 클럽 회장(21.8%), 송주호 완도어민후계자협회부회장(24.8%)이 각기 차지했다.

무안군 광역의원 1선거구는 언론인인 김석원씨가 38.65%의 지지율을 보여 후보 자격을 획득했고 구례군 광역의원 1선거구는 서정용 구례군의회 의장(23.6%)이 후보로 선정됐다. 신안군 광역의원 1,2선거구는 임흥빈 신안군 사회복지협회장(25.8%), 중앙당 대의원인 김종호씨(27%)가 후보로 확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좋은 정책으로 선의 경쟁하자"

與 서범석 지사 예비 후보 박준영 전남지사와 면담

5·31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와 열린우리당 서범석(55) 경선 후보가 서로 만나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서 전 교육부차관은 11일 전남도청을 방문, 박준영 지사를 면담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수석과 교육비서관으로 1년8개월여 동안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이다. 따라서 이날 만남은 경쟁자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마치 선후배의 만남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서 전 차관은 "도청을 방문한 마당에 선배님을 뵙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후보가 되면 공식적으로 만나 지사님의 정책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 지사도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 많이 했다. 전남은 어려운 지역인만큼 좋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자"며 "당내 경선 잘 치르고 본선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선거 과정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대신 좋은 정책을 내세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약도 단기 공약보다는 장기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자고 약속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애인 선거 참여 확대 간담회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선거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 진선수씨 광주시장 출마 선언

시당 "인재영입 노력 계속"… 최종 공천 결과 주목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 영입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선수〈사진〉 광주 남구 지역위원장이 11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최종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 안재홍)과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한달여 동안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울 만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경기권은 희망자가 많아서 고민인 반면, 충청과 호남권은 마땅한 후보가 나서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전직 행정가, 변호사, 교수 등 제1야당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본인이 고사하든지, 가족들이 극구 만류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서 진선수 위원장이 10일 오전 광주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남기초장 3곳 확정

여수시장 후보 김용우
목포시장 후보 천성복
완도군수 후보 홍종기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재순)은 11일 5·31 지방선거 제1차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용우(53) 전 세계일보 기자를 여수시장 후보로, 천성복(43) 전 목포시지구당 청년부장을 목포시장 후보로, 홍종기(57) 영진수산유통 대표를 완도군수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김용우 후보

천성복 후보

홍종기 후보

공심위는 또 오창석(61) 목포시의정회 재무와 선무일(64) 전 목포시의원을 각각 목포시 기초의원 후보로, 박명석(60) 전 진도고 교사를 진도군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서를 통해 "군소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호남민심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이 지역에서 외면당한지 오래"라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정당은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與, 14일 목포서 지사후보 발표

○…정동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오는 14일 목포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남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서남권과 동부권에서 잇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필승결의대회를 갖는 등 전남지역 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바람몰이에 나선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목포시 석현동 웨딩팰리스에서 정 의장과 김근태·김두관·김혁규·조배숙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순천으로 이동해 동부권 출마자들과 함께 '동부권 지방선거 출마자 필승 결의대회'를 가진 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국창근후보, 공특위 결정 재고 촉구

○…국창근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여론조사 공천은 민주당 궤멸 공천"이라며 제17차 공특위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후원당원 명부 불법 유출과 당비대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미 실시한 여론조사 공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특히 공특위가 10일 밤 회의에서 여론조사 방침을 정하고 다음날 곧바로 접수비 6천500만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식적인 접수기간 관례에 비춰 '돈 없으면 접수하지 말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공천은 선거승리위한 결단"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경선과 전략공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성명서에서 "경선은 후보를 선정하는 좋은 방법이나 공정한 게임이 전제 또는 담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선은 100m 단거리 경주에서 한 후보는 80m 이상을 달리고 있고, 한 후보는 이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 "현재의 전략공천은 절대 권력자가 공천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선거 승리, 집권이라는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민주 낙하산 공천 구태정치 표본"

○…열린우리당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을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김 후보는 또 "우리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와 가상대결을 기정사실화해 발표함으로써 우리당의 경선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 이번 선거를 정정당당하고 유쾌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박지경기자 jkpark@